

전주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탄력

‘2026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8년 연속 선정

전주시가 에너지 자립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내년에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대폭 확충키로 했다.

시는 산업통상부와 한국에너지공단 이 실시한 ‘2026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 8년 연속으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특정 지역 공공·상업·주택시설에 태

양광과 태양열, 지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의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국비 10억 3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내년 상반기 중 국비를 포함해 총사업비 29억 원을 투입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 지역은 완산구로, 시는 주

열 10개소(136㎡), 지열 22개소(385kw)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시는 연간 3,153MWh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270.25tce의 화석에너지 대체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이는 4인 가구 기준 751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올

해까지 7년 동안 이 사업을 통해 총 1,586개소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했으며, 이를 통해 연간 1만688MWh의 에너지절감 및 919.18tce의 화석에너지 대체효과 등을 거두고 있다.

진교훈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사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전기요금 절감 효과로 시민들의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에너지자립률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는 최근 서울 KBS신관 아트홀(웨딩홀)에서 열린 2025년 사랑의열매 '기부자 가치의 밤' 행사에서 진행된 '제12회 사랑의열매 대상 시상식'에서 도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시민참여 부문 '나눔장'을 수상했다.

따뜻한 복지도시 전주 빛났다

사랑의열매 대상 시상식서 시민참여 부문 '나눔장' 수상

전주시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복지정책 추진 및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선 도시로 인정을 받았다.

시는 최근 서울 KBS신관 아트홀(웨딩홀)에서 열린 2025년 사랑의열매 '기부자 가치의 밤' 행사에서 진행된 '제12회 사랑의열매 대상 시상식'에서 도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시민참여 부문 '나눔장'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시는 사랑의열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의 협력 아래 매년 도내 상위권 모금 실적을 기록하며 시민 참여형 복지 플랫폼을 구축해 왔다.

특히 최근 3개년 동안 전주시 연말연시 희망나눔캠페인 모금액은 △2023년 10억7200만 원 △2024년 9억7700만 원 △2025년 9억6400만 원으로, 연간 모금액 부문에서는 1위를 꾸준히 유지했다.

또 지난해 연간 총 30억8500만 원을 모금하고 62억2400만 원을 배분해 지역 복지 사업에 재투자했다.

시는 행정의 노력과 더불어 기부자와 유관기관, 봉사단이 함께 만든 따뜻한 협력의 결실이 이 같은 성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청년 1인 가구 주거 정책 전략방향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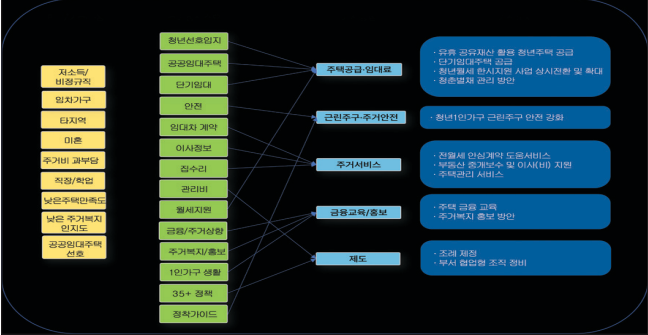
전주시정연구원, 'JJRI 정책브리프 제10호' 발간… 청년주택 공급·동네 안전 강화 등 제안

전주시정연구원(원장 박미자, 이하 연구원)은 전주시 청년 1인 가구 주거 실태와 수요 분석, 정책적 시사점을 담은 'JJRI 정책브리프 제10호'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연구원은 '전주시 청년 1인 가구 주거 수요 분석 및 정책 제언'을 주제로 한 이번 정책브리프를 위해 '2022년 전주시 주거실태조사' 중 청년층(18세~39세)을 중심으로 주거 실태를 분석하고, 주민등록상 전주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심층 인터뷰(20인)를 진행해 전주시 최초로 수요기반형 주거정책 및 시사점을 제시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전주시 청년 1인 가구는 대체로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18세~29세 청년의 96.2%, 30~39세 청년의 87.7%가 입차 가구인 것을 확인했다.

또한 20대 청년 월세가구의 44.8%,



전주시정연구원은 전주시 청년 1인 가구 주거 실태와 수요 분석, 정책적 시사점 등을 담은 'JJRI 정책브리프 제10호'를 발간했다.

30대 청년 9.2%는 주거비 부담이 과도하다고 분석했으며, 이들은 공과금과 관리비 등 간접적인 주거비 지출에서도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청년 1인 가구의 비율은

54.9%로 매우 높은 반면, 실제 입주를 해 3.0%에 그쳐 정책 수요와 현실 간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연구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단기임대주택에 대한 청년들의 선호가 뚜렷하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여성 청

/권희성 기자

전주시, 혁신도시 악취 저감 위한 주민간담회 가져

전주시는 30일 혁신동 주민센터에서 혁신도시 악취 저감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가축분뇨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간 추진된 악취저감사업의 추진 사항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시는 혁신도시 악취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주민들로 구성된 악취모니터단의 운영 실적과 유관기관과의 악취 저감 협력사업의 진행 상황, 악취 유발시설에 대한 관리계획

등을 설명했다.

특히 이날 악취모니터원들은 그간의 활동 소감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사업의 필요성과 악취를 발생하는 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 적극적인 단속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시는 앞으로도 악취모니터단과의 활동과 무인악취포집기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연계하는 등 악취발생시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및 인접 시·군과 협업체대 다양한 악취저감사업들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동물원 주차 요금 15년 만에 1500원으로 인상

전주동물원 주차 요금이 15년 만에 1500원으로 인상되며 시민 편의를 위해 동물원 운영시간 외에는 무료로 개방키로 했다.

전주시는 11월 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전주동물원 주차 요금이 조정된다고 30일 밝혔다.

동물원 주차장 요금 인상은 15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시설 유지관리비 상승과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현재 전주동물원 주차 요금은 승용차 기준으로 1회 1000원으로 2009년

이후 동결돼 왔으며, 조정 이후에는 1500원으로 인상된다. 또, 25인승 이상 승합차의 경우 기존 2000원에서 3000원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시는 요금 인상분을 주차장 내 노후 포장 및 진입로 개선 등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개선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물원 운영시간(오전 9시~오후 6시) 외 시간에는 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의회, 성평등 기반 마련·응급의료 지원조례가결

전주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성평등 기반 마련과 시민 안전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남숙 의원(동서학, 서서학 평화1·2등)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주시 정책 전반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를 통해 안전하고 돌봄이 있는 도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 조례의 적용 범위 △지원사업 및 사무 위탁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실시, 평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위원회 설치·기능 △시민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최주만 의원(부의장/동서학, 서서학 평화1·2등)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이남숙 의원

최주만 의원

페소생을위한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안은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초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응급 장비 확충과 시민 대상 교육체계를 제도화해 응급상황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응급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 △응급장비 설치 대상 △응급의료 지원 및 관리 △응급처치·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권희성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전북은행이 함께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JB카드 신청하기

크레딧 신청하기

자세한 내용은 전북은행 홈페이지(www.jbbank.co.kr) 또는 부담경감크레딧.kr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연회비 범위 0원 ~ 120,000원

※ 계약을 체결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연이자율: 회원별, 이용상품별 약정금리+최대3%(p), 법정 최고금리(연20%)이내

단, 연체발생 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일시불 거래 연체시: 거래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 금리

- 무이자 할부거래 연체시: 거래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 금리

- 그 외의 경우 : 약정금리는 상사발행이율과 상회금율 가계자금 대출금리(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대출 기준)) 중 높은 금액 적용

금융으로 더 따뜻한 세상 을 만듭니다

OPEN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이란?

지원대상

✓매 출 규 모 : '24년 혹은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 3억원 이하

✓활동사업자: 개업일이 2025. 5. 1 이전이며, 신청일 기준 휴폐업상태가 아닌 영업사업체

✓업 종 제 한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

신청기간

2025.7.14(월) 9시부터 ~ 11.28(금) 18시까지

지원금액

50만원

지원방식

소상공인 1인당 등록된 카드로 지급(2025.12.31까지 사용)

사용항목

공과금 및 4대 보험료